

## 제 7 장 백석면(白石面)



해유령 전첩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방축리(防築里)·산성리(山城里)·대오산리(大梧山里)·상가업리(上加業里)·내동리(內洞里)·난곡리(蘭谷里)·내고령리(內高靈里)·마장리(馬場里)·고릉리(古陵里)·홍복리(弘福里)·소오산리(小梧山里)·기곡리(基谷里)·홍동리(弘洞里)·연평리(蓮坪里)·중산리(中山里)·대고령리(大高靈里)·능내리(陵內里)·신지리(莘池里)·하가업리(下加業里)·단촌리(短村里)·천죽리(川竹里)·해유리(蟹踰里)·옹장리(甕場里) 등 23개 리를 두었다.<sup>1)</sup>

1914년 4월 행정 구역이 전면 개편될 때, 광석면 일패리·이패리·파주군 광탄면 마장리·고양군 신철면 벽제리등 4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백석면에 편입시켰다. 아울러 리 체제를 전면 개편, 방성리·오산리·홍죽리·연곡리·영장리·기산리·가업리·복지리등 8개 리를 두었으며, 면사무소는 오산리에 설치하였다.<sup>2)</sup>

1983년 2월 15일 기산리·영장리 등 4개 리가 파주군으로 이속되었고, 1987년 1월 1일 기산 1리가 다시 환원되었다. 1990년 1월 1일 현재 8개 법정리, 18개 자연리가 있다.

백석이라는 지명은 이곳 산성에 흰돌이 있다 한데서 비롯되었다.

## 1. 방성리(防城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방축리<sup>3)</sup>·산성리 전부와 고릉리·광석면 일패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고, 방축리(防築里)와 산성리(山城里)에서 한 자씩을 따서 방성리라 하였다.

### ● 고능말[古陵-]

방성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능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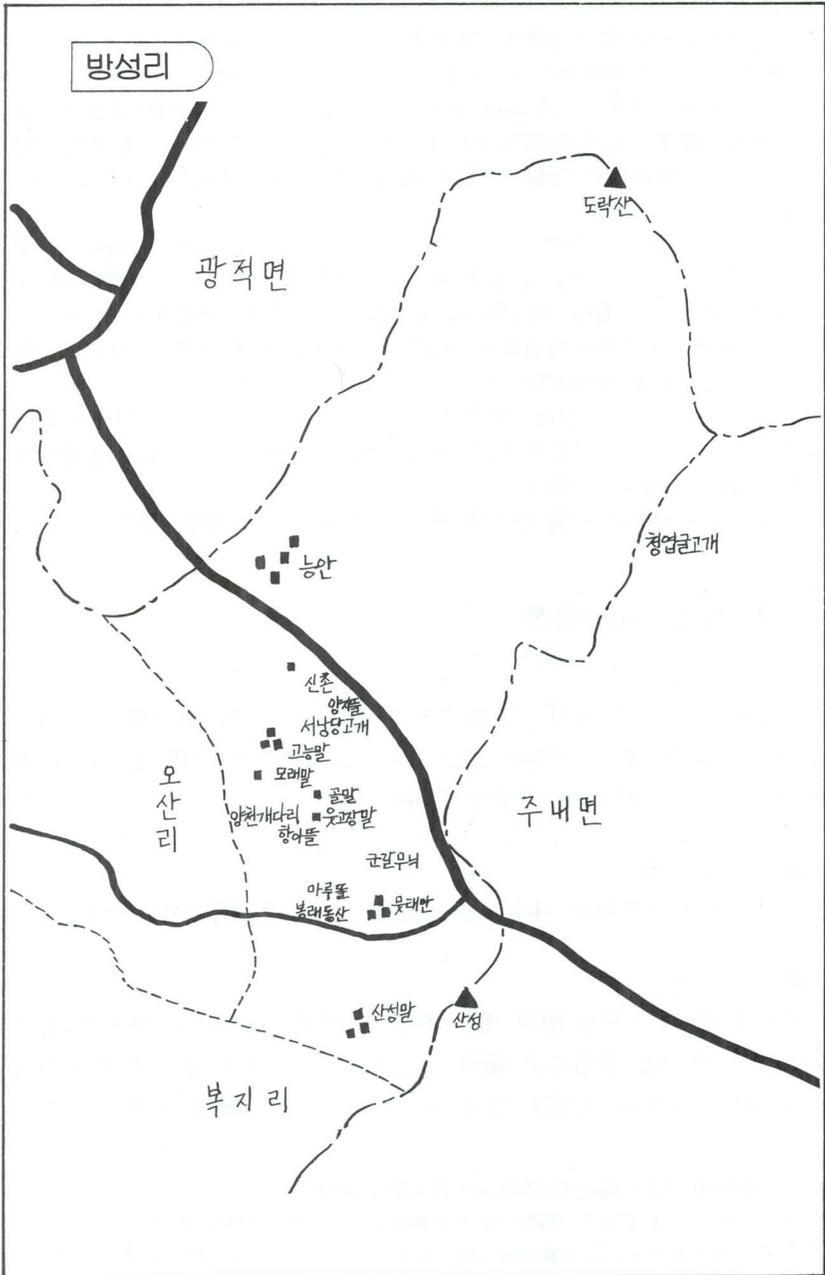
### ● 고만이안

산성말 앞 대모산성 밑에 있는 마을. 이곳에 ‘고’씨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벼 ‘만’석을 하였다고 하여 고자와 만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 마을에는 조선조 당시 수백여 호가 번성하며 살고 있었다고

1) 朝鮮總督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15쪽.

2) 朝鮮總督府,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124쪽.

3) 앞의 『舊韓國地方行政地域名稱一覽』 15쪽에는 ‘防等里’라고 되어 있다.



한다.

● 골말

고능말 남동쪽 안쪽에 있는 마을.

● 골안바닥

고능말의 안쪽에 있는 마을. 골말의 서쪽이다.

● 능안[陵内]

고능말 안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밤나무가 많아서 밤나무골로도 불린다.

● 다랫말

고능말 북쪽에 있는 마을.

● 모래말

고능말의 북쪽에 있는 마을. 모래가 많았다고 하며 지금도 땅을 파면 모래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 못태안·방축(防築)

고능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 부락 앞에 큰 연못이 있었고 연못 뒤에 있는 부락을 못뒷골안이라 하던 것이 발음변화로 못태안이 되었다 한다. 방축둥이라고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모양이 삼태기 같다고 생각하거나, 김해 김씨·광릉 임씨 외의 타성은 살지 않는다고 하여 무타인이라고도 한다.

● 신촌(新村)

능안 남쪽에 새로 조성된 마을.

● 웃고장말

고능말에서 남동쪽에 있는 마을.

● 중간말

고능말의 가장 중간에 있는 마을.

## ○ 가운데우물

마을 가운데에 있는 우물.

## ○ 개논

고능말 남쪽에 있는 논. 옛부터 모가 잘 되고 수확이 좋은 논을 개논이라 불렀다고 한다.

## ○ 거북바위

방성 5리에 있는 바위. 거북이 등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고깔바위

고깔처럼 생겨 이름이 붙은 바위.

## ○ 고래논

물이 많이 나는 논.

## ○ 곰잡은골

청려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서 곰을 잡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국골

1950년까지만 해도 주로 의정부에서 장을 보아 왔는데 장에 간 남편이나 아낙네가 날이 저물어 돌아 오게 되면 도둑, 강도, 산짐승 등의 공포 때문에 이곳에 와서 군호로 ‘국국’하고 신호를 보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군갈무늬·군장곡(軍藏谷)

못태안 북동쪽에 있는 들.

## ○ 궁갈문고개

오산삼거리에서 지방도로를 따라 1km 가량 지난 지점. 예로부터 궁갈무늬고개라고 불리어 왔다. 일제시대 총독부에서 금광을 발굴하려고 산허리를 뚫을 때 금가루 무늬가 나왔다 하여 금가루무늬고개·금갈문고개라 하였으나 발음변화로 궁갈문고개로 바뀌었다 한다. 윗나무가 있었다 하여 윗나무베기고개라고도 한다. 지금은 백석주유소가 있을 뿐이다.

## ○ 김새이골 · 김승골

4리에 있는 골짜기. 김승이 많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 꽃봉골

방성 4리 호명산 중턱에 있는 골짜기. 옛부터 이곳에 벚꽃나무가 있었으며, 봄이면 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여러 그루의 꽃나무가 자라고 있다.

## ○ 농바위

못태안 동쪽에 있는 바위. 옷장이 진열되어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능모퉁이

방성 4리 호명산 밑 어둔리·가업리간 도로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는 야산. 옛부터 지관이 능 터를 잡으려다 못 잡은 곳이라 하여 ‘능못 잡은곳’ 또는 ‘능못한곳’이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능못탱이, 능모퉁이로 되었다 한다.

## ○ 대모산

주내면과 백석면 경계에 있는 해발 212.9m의 산. 원래 이름은 퇴미산이었다고 한다.

## ○ 덕재고개

호명산 서늘 위에 있는 고개. 옛날 마을 사람들은 지계를 지고 호명산을 오르내리며 땀나무를 구하다가 이곳에서 쉬곤 하였다. 이곳의 고개가 크다 하여 큰 ‘德’자를 써 덕재고개라 한다.

## ○ 도락산(道樂山)

백석면 방성리·회천읍 덕계리·은현면 도하리·광적면 가남리에 걸쳐 있는 높이 441m의 산. 지명유래는 여러가지가 전한다.

① 고려 건국 후, 조정에서 지사(地師)를 시켜 송도 부근 500리 이내의 산천을 답사하였더니 유독 도락산만은 송도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조례(朝禮)를 하는 것 같다 하여 충신산(忠臣山)으로 불렀다. 그 후 조선왕조가 개창되고 한양으로 도읍이 정해진 뒤, 조정에서 역시 유명

한 지사를 시켜 한양 부근 500리 이내의 산세를 답사한 결과, 모든 산 봉들이 한양 쪽을 향해 조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산만은 한양을 배반하고 있다 하여 조정에서 산 머리를 치게 했다. 이에 머리가 떨어졌다 하여 두락산(頭落山)이 되었다. 그러다가 약 200년 전에 산 이름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음이 비슷한 도락산으로 고쳐 불렀다.<sup>4)</sup>

② 옛날 모든 산들이 서울 남산을 향하여 줄줄이 이동할 때, 불곡산이 길을 막고 터 주지 않자 화가나서 북쪽(은현면 방향)으로 돌아 앉았다 하여 '돌아 앉은산'으로 부르다가 '도랍산' '도락산'으로 변하였다.

이곳에는 대장암(大藏岩), 선경암(仙敬岩), 사모암(紗帽岩) 등의 바위와 깃대봉[旗臺峰]이 있다.

#### ○ 도둑굴

방성 4리와 주내면 어둔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호명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모판산 옷모단(옷방죽)을 향하여 흐르고 있으며, 그 산 골짜기에 옛날부터 도둑이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 전해진다.

#### ○ 두레우물

산성말에 있는 우물. 두레박을 이용한다고 붙은 이름이다.

#### ○ 마루뜰

못태안 서쪽에 있는 뜰. 뜰이 넓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만수터

방성 4리 호명산 밑의 어둔리·가업리 간 도로 옆에 있는 터. 옛날 황중복가의 선대 묘소 3기가 있던 곳인데, 그 앞에 옷방죽을 만들자 묘소 앞까지 많은 물이 가득 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황씨 가문은 물명당자리에 산소를 잡아 후일 정승이 나왔다고 전하여진다. 지금은 개간되어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 ○ 망향탑

청엽골 가는 곳 불곡산 입구에 있는 비석.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이

4) 양주문화원, 『양주군지』 상, 1992, 42쪽.

세운 비석이라 하며, 평북 박천동산이라고도 한다.

○ 면화개울·메나개울

호명산에서 북쪽 방향으로 내가 흘러 형성된 자그마한 개울. 조선조 말 개울 주변 약 4천여 평에 면화밭이 있어 가을이면 하얀 면화가 눈송이처럼 날려 붙여진 이름이다. 앞에는 산성말이 자리하고 있다.

○ 모우물

산성말에 있었던 우물. 물을 모아서 먹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대지로 변하였다.

○ 바가지우물

산성말에 있었던 우물. 바가지를 이용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논으로 변하였다.

○ 박석다리

산성말 앞골에 있는 다리. 호명산에서 기원한 물과 동쪽 모판산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산성말 앞골을 지나는데,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으나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 온 밀양 ‘박’씨가 ‘돌’다리를 놓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방아다리

방앗간이 있었던 다리.

○ 방죽골

도당터·못태안 뒤에 있는 골짜기. 방죽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범바위

청엽골 왼쪽 산등성이에 있는 바위. 옛날 호랑이가 이 바위에서 울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범을산

이곳에서 범이 새끼를 낳았다고 전해진다.

## ○ 봉내동산

못태안 논 가운데에 있다. 옛날 산소를 쓰려고 땅을 파자 봉 두 마리가 나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봉숨아골

못태안에 있는 골짜기. 봉내동산에서 날아온 봉이 숨은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불당골

불당이 있었던 골짜기.

## ○ 산성·양주산성

백석면 방성리와 주내면 어둔리에 연결하여 있는 성. 대모산의 정상 부를 에워 싸고 있다. 원래 퇴미산이었는데 산성이 만들어진 후 산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주치소(州治所) 서쪽 5리 지점에 있고 석축이며, 둘레는 9백 6척, 높이는 5척이라 되어 있다.<sup>5)</sup> 대모산성이란 명칭은 ‘대모성’ ‘노고성’ ‘할미성’ ‘마고성’ 등과 상통하는 ‘큰성’이라는 의미의 일반명사일 가능성이 크다.<sup>6)</sup> 산의 형세가 모판 같다 하여 모판산이라고도 부른다.

## ○ 삼동바위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바위.

## ○ 상투봉

고능말 북동쪽 도락산 봉우리 가운데 상투처럼 생긴 봉우리.

## ○ 서낭당고개

고능말로 넘어오는 고개. 성황당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서돌

호명산 중턱에는 커다란 검은 바윗돌이 수만 개 쌓여 있는데 이곳을 옛날부터 ‘서돌’이라 부르고 있다.

5)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I 경기·충청도, 1967, 266쪽.

6) 양주문화원, 『양주군지』 하, 1992, 136쪽.

○ 세귀배미

논의 귀퉁이가 세 개라서 이름이 붙은 논.

○ 소북뜰

고능말 북동쪽에 있는 들.

○ 쇠뿔바위

여우골에 있는 바위. 쇠뿔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시루봉

시루처럼 생겨 이름이 붙은 봉우리.

○ 앞골논

산성마을 앞에 있는 논.

○ 양가뫼

산성말의 호명산 긴줄기가 북쪽을 향하여 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산을 가리켜 옛부터 양가뫼라 한다. 조선조부터 지금까지 양씨가 묘를 쓰고 있어 양가네 묘, 양가의 묘라 한다.

○ 양지뜰

고능말 북동쪽에 있는 들.

○ 양천개

고능말 서쪽에 있는 들.

○ 양천개다리

양천개에 있는 다리.

○ 양천개울

고능말 앞쪽에 흐르는 작은 내. 신천으로 흘러든다.

○ 여우골

도락산에서 발원한 샘 줄기가 흘러 1km 지점에 있는 골짜기. 옛부터 여우가 많이 살고 밤이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며 산의 형세가 여우 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오산삼거리

불곡산과 모판산을 사이에 두고 의정부에서 법원리를 향해 가는 방성 3리에 있는 도로. 감악산으로부터 빼아리(나무단)나 좁쌀을 마차에 싣고 한양으로 가는 길목으로 네 곳으로 길이 나 있어 옛부터 네거리라 하였다. 지금은 주내면 어둔리로 가던 길도 없어졌을 뿐더러, 오산삼거리란 지명으로 바뀌었다.

○ 옥살미

모판산 아래의 넓은 들. 옛부터 구슬 같은 쌀이 난다 하여 구슬 ‘玉’자를 붙인 이름이다.

○ 장안터

방성 4리에 있으며 옛날 성황당이 있던 자리. 이곳은 옛날 가업리와 북지리 주민들 대부분이 의정부를 왕래하던 유일한 통로였다. 조선조 중엽에 시장이 섰다 하여 장안터로 불린다.

○ 진골

긴 골짜기여서 붙은 이름이다.

○ 천냥바위

바위가 아름다워 천 냥을 주고도 못 산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청려골[靑黎谷]

고능말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명아주가 많고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할딱고개

고개를 오를 때 할딱할딱 숨이 가쁘고 힘이 들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항아들

고능말 남쪽에 있는 들.

## 2. 오산리(梧山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신지리 전부와 백석면 대오산리·소오산리·단촌리·고릉리·능내리, 광석면 일패리·이패리 등 7개 리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오산리라 하였다.

오산의 옛 지명은 고산(孤山)인데, 산이 외따로 떨어져 있어 붙여진 것이다. 또 오미라고도 하는데 ‘미’는 ‘뫼[山]’의 변화로 볼 수 있다.

### ● 골말

큰오미 동쪽에 있는 마을. 북쪽을 등지고 있고 골이 깊어 붙은 이름이다.

### ● 넘어말

작은오미에 있는 마을.

### ● 단촌(短村)

작은오미 북서쪽에 있는 마을. 홍죽천과 신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물줄기가 광석면 경계에서 끊어졌다고 하여 끝 ‘端’자와 마을 ‘村’자를 따서 ‘端村’이라 하다가 ‘短村’이 되었다. 또 하천 물줄기의 소리가 끊어졌다고 하여 ‘절음막(切音莫)’이라고도 불렀는데,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여 잘 살라는 뜻에서 ‘결음막’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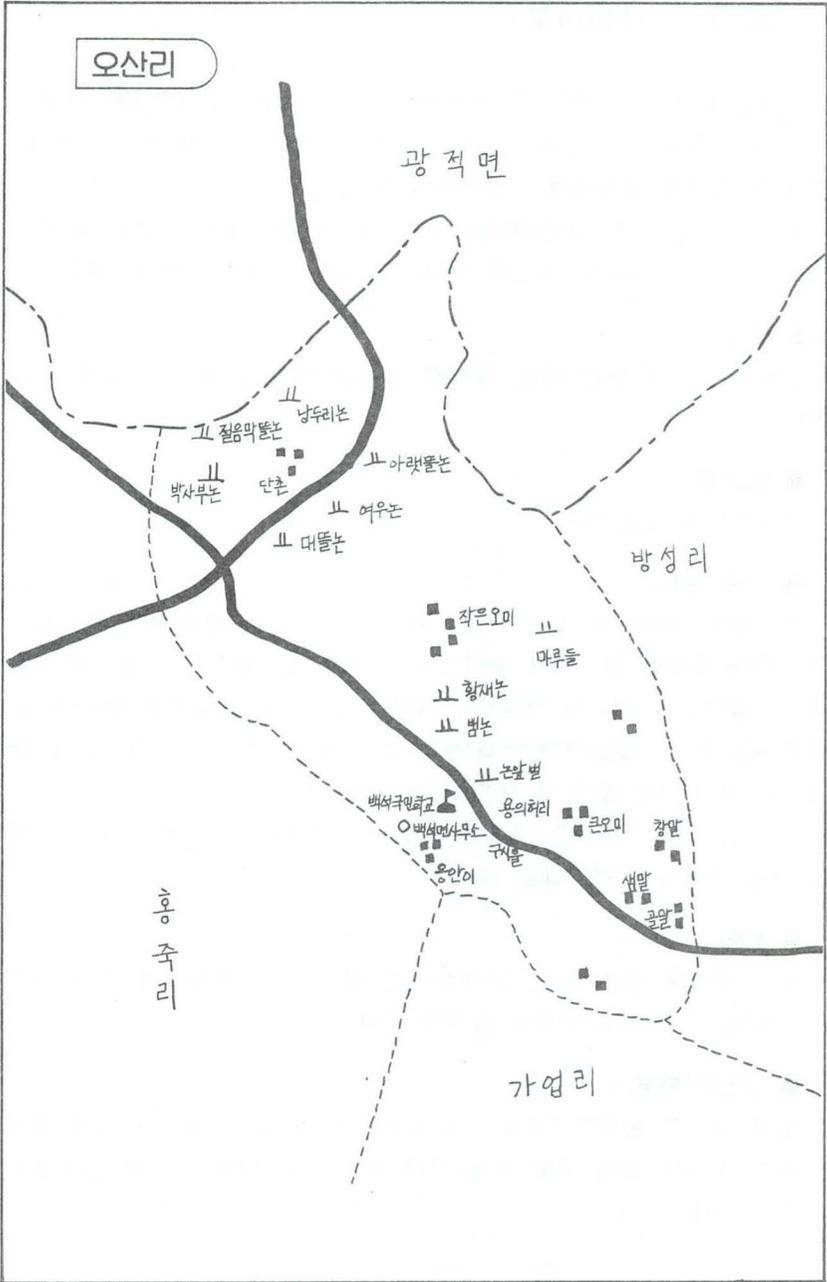
이 마을에서는 우물을 만들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울물을 먹었다고 한다.

### ● 샘말

골말 서쪽에 있는 마을. 만병통치의 샘물이 논 가운데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무병(無病)마을로 알려져 있다.

### ● 웅안이[梧安-]

오산 남서쪽 백석면사무소가 주재하고 있는 마을. 뒷산에 흔히 기러기떼가 앉는다 하여 웅안(雍雁)이라 하였는데, 발음과 한자말이 모두 변한 것이다.



● 작은오미 · 소오산(小梧山)

대오산 북서쪽에 있는 마을. 박석고개라고도 한다. 위쪽에 있는 윗말, 중간에 있는 중간말, 아래쪽에 있는 아랫말, 넘어말(넘말) 등을 합쳐 소오산이라 한다.

● 창말

골말 건너편에 있는 마을. 옛날 병기와 군수품 창고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 큰오미 · 대오산(大梧山) · 고산(孤山)

오산리의 큰 마을. 약 90년 전에는 대고산(大孤山)이라 불려졌으나 부르기 좋게 대오산(大梧山)으로 변하였다 하며, 산 하나가 외롭게 떨어져 있고 꼬리 형상을 하고 있어 고미(孤尾)라고도 한다. 골말 · 창말 · 샘말을 합쳐 대오산이라 한다.

○ 구렁행길

큰오미 서쪽에 있는 길. 양쪽으로 산이 이어져 있고 구비구비 휘어진 모양이 마치 구렁이 모습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구시울

큰오미에서 백석면사무소 방향에 있는 골짜기.

○ 국논

백석면사무소 남동쪽에 있다.

○ 낭두리논

단촌에서 조양국민학교로 가는 도로변 왼쪽에 있는 논.

○ 논앞벌

백석국민학교 건너편에 있는 들.

○ 늑골

단촌 북쪽에 있는 논. 늑긩이라고도 한다. 땅이 거칠어서 제일 늦게 모를 낸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탁신자골

큰오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당재고개

큰오미에서 남쪽 북지리로 가는 고개. 성황당이라고도 부른다.

## ○ 대들

작은오미 북서쪽에 있는 들. 들판이 매우 광활하고 크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대들논

단촌 남쪽에 있는 논.

## ○ 동네뿌리

백석국민학교 건너편 북동쪽에 있는 산. 동네 제일 끝에 우뚝 솟아 있어 붙은 이름이다.

## ○ 떡논

오산 2리에 있는 논. 떡 한 말과 이 논을 바꾸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 똥논

백석면사무소 남동쪽에 있는 논.

## ○ 마루들

작은오미 동쪽에 있는 들. 지대가 높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모래풀

큰오미 북쪽에 있는 밭.

## ○ 박사부논

단촌 서쪽에 있는 논.

## ○ 박석고개

지금의 세아아파트 지역에 있었던 고개. 풍산 홍씨 묘를 쓴 후 산맥이 끊어지지 않게 구들 같은 돌을 달아 놓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다.

○ 방아다리

연자방아가 있었던 다리. 일제시대에 백석교로 고쳤다고 한다.

○ 백중논

큰오미 남쪽에 있는 논. 이곳에서 난 쌀로 밥을 해 먹으면 백발백중 죽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뱀논

백석국민학교 건너편 북동쪽에 있는 논. 하천을 따라 뱀같이 길고 좁은 논이라 붙은 이름이다.

○ 분턱골

큰오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사태밀

큰오미에서 북지리로 가는 길. 비만 오면 산사태가 많이 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송충들

오산 2리 동쪽에 있는 논.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지금도 소나무가 썩어서 된 토탄이 나온다고 한다.

○ 수렁논

큰오미의 남동쪽에 있는 논.

○ 식혜배미

큰오미의 북동쪽에 있는 논. 이곳에서 나는 쌀로 식혜를 만들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아랫뜰논

단촌에서 조양중학교로 가는 도로편 우측에 있는 논.

○ 양가메이뿌리

오산삼거리에서 150m 떨어진 천성농원 우측의 터진 담 모퉁이에 있다.

- 여우논 ,  
단촌 남쪽에 있는 논. 옛날에는 야산으로 여우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웅안리 앞골  
큰오미 남쪽에 있는 논.
- 용의 허리  
백석국민학교 건너편 동쪽에 있는 등성이. 웅안리 뒷등이라고도 한다.
- 절음막뜰논  
단촌 북서쪽에 있는 논.
- 정양터  
큰오미에 있는 골짜기.
- 축등  
큰오미 북서쪽에 있는 논.
- 황새논  
작은오미 남쪽에 있는 논. 황새가 많았던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 3. 복지리(福池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홍복리 전부와 백석면 신지리·대오산리·상가엽리 3개 리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복지리라 하였다. 지명은 홍복리(弘福里)와 신지리(莘池里)에서 한 자씩 따서 복지리(福池里)라 하였다.

- 건너말  
신지 건너쪽에 있는 마을.
- 대장간  
셋말 북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대장간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셋말**

신지와 섬말 사이에 있는 마을.

● **섬말**

신지의 가운데 있는 마을. 몇 채 안 되는 집들을 논이 둘러싸고 있으며 다른 마을과는 외따로 떨어져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신지(莘池)**

북지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못이 있고 주위에 아름다운 개나리 나무가 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아랫말 느티나무 아래에 연못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 **아랫말**

대장간 북쪽에 있는 마을.

● **양촌(陽村)·월촌(越村)**

호명산과 한강봉 사이에 홍북에서 발원한 내로 인해 동서로 갈리어 있는 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은 서쪽으로 넘어가는 햇빛이 하루 종일 비친다고 하여 양촌이라 하였으며, 서쪽 마을은 햇빛이 일찍 넘어가고 개울을 넘어 다닌다고 하여 월촌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두 명칭이 모두 사라졌다.

● **윗말**

신지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

● **홍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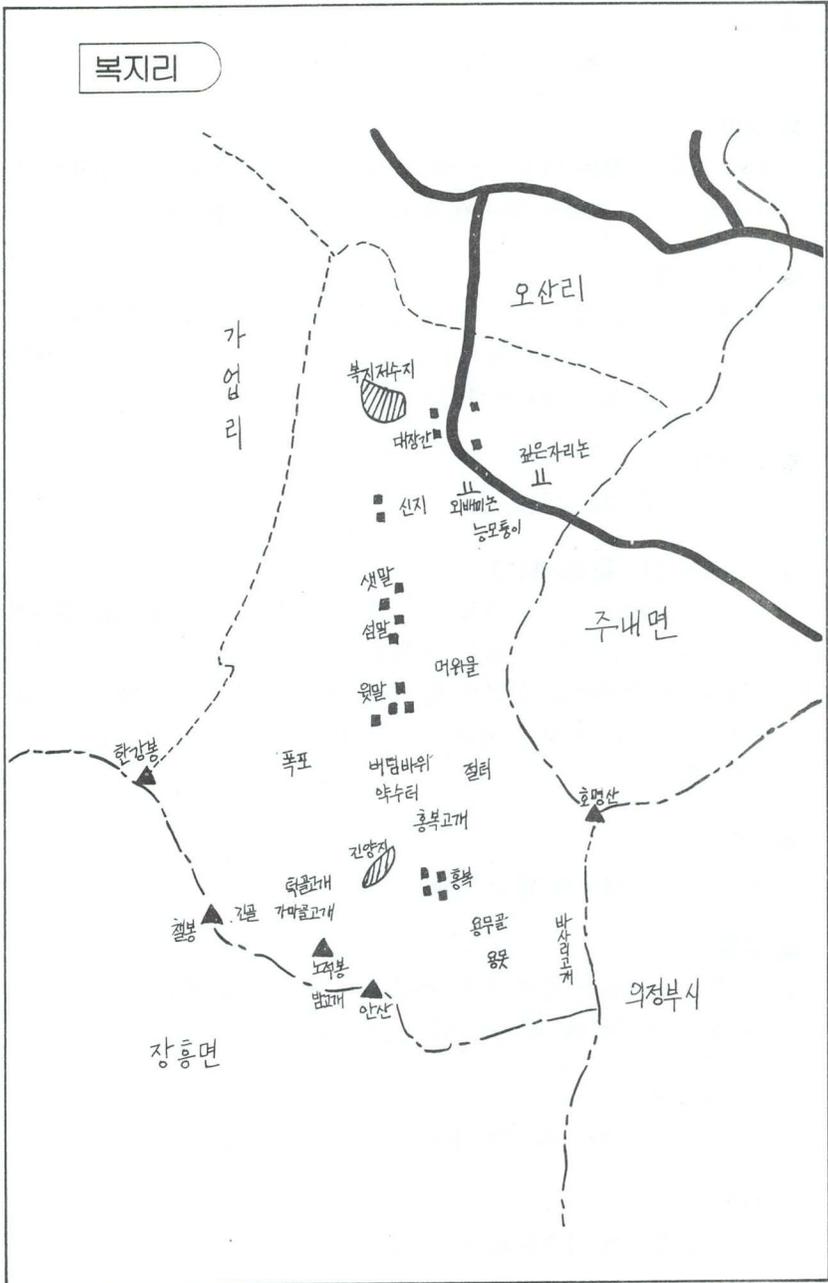
신지 남서쪽 홍북산 밑에 있는 마을. 이 마을은 큰 북을 받는 부락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다. 분지에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 **가마골고개**

북지 2리에서 가마골로 넘어가는 고개.

○ **국논**

백석면사무소에서 북지리로 오는 도로 우측에 있는 논.



○ 긴골

첼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긴양지

홍북 서쪽에 있는 능선. 능선이 길고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 붙은 이름이다.

○ 깊은자리논

북지리에서 어둔리로 가는 도로 좌측에 있는 논. 논이 깊어 붙은 이름이다.

○ 노라바위

바위 위에 모여 늘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노적봉

첼봉 동쪽에 있는 봉우리. 노적을 쌓아 놓은 것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노지(蘆池)

북지리 또는 가업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못. 주치소(州治所) 서쪽 10리 지점에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북지리 또는 가업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7)</sup>

○ 능모퉁이

북지리에서 어둔리로 가는 도로 우측에 있다. 조선조 때 이곳에 능을 만들려다 취소한 곳이라고 한다.

○ 당모랭이

오산리에서 북지리로 오는 도로 좌측에 있다.

○ 돼지물굴

홍북 서쪽에 있는 골짜기. 멧돼지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7)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244쪽.

- 똥논  
백석면사무소에서 북지리로 오는 도로 우측에 있는 논.
- 머위물  
머위나물이 많이 나서 붙은 이름이다.
- 밤중논  
신지 북동쪽에 있는 논. 토질이 좋지 않아 일을 나가면 밤중까지 해 지는 것도 모르고 일을 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바사리고개  
북지리 용무골에서 의정부시 입석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성황당이 있었다고 한다.
- 밭고개  
홍북에서 장흥면 부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밤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 버팀바위  
홍북고개 북쪽 왼쪽에 있는 바위. 막대기를 이 바위 틈새에 끼워서 맞으면 아들이고 안 맞으면 딸이라고 한다.
- 불당골  
셋말에서 어둔리쪽에 있는 골짜기.
- 삼밭골  
신천 개울을 따라 호명산으로 향해 있는 삼각형의 골짜기. 신천의 본 줄기이며 조선조 이 근방에 삼밭이 골짜기를 이루고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셋고래  
섬말과 셋말 사이에 있는 논.
- 신지고개  
신지에서 홍북으로 넘어가는 고개.
- 신지고개논

신지고개 남쪽에 있는 논.

○ 안산

홍북 남쪽 장흥면 경계에 있는 산. 앞산이 안산으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 앞자리는

홍북 남쪽에 있는 논.

○ 약수터

신지에서 홍북으로 가는 고개에 있는 약수터. 뼈에 금 간 것을 치료하는 산골이라는 생물체가 물 속에 살고 있어 산골약물터라고도 한다.

○ 약수터절

홍북고개 약수터 위에 있었던 절.

○ 어룽

용무골에 있다.

○ 외배미논

북지리에서 어둔리로 가는 도로 중간 우측에 있는 논.

○ 용못

홍북저수지 남쪽에 있는 연못.

○ 용무골

홍북저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웃말논

홍북 서쪽에 있는 논.

○ 절골

홍북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절이 빈대로 인해 없어졌다고 한다.

○ 절터

신지고개 동쪽에 있는 터. 절터가 있었다고 한다.

○ 첼봉

홍북리와 장흥면 경계에 있는 높이 516m의 산. 일명 제일봉이라고도 한다. 옛 족보에는 차일봉(遮日峰)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일이 첼로 발음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큰골

신지 남쪽의 큰 골짜기.

○ 턱골고개

북지리에서 기산리 턱골로 넘어가는 고개.

○ 호명산(虎鳴山)

방성 4리와 북지리 남쪽에 걸쳐 있는 산. 산세가 좋고 ‘상살미’라는 12골의 골짜기가 있는데 산세가 매우 험하여 각종 산짐승이 서식하였다. 특히 호랑이가 많아 밤이면 잠을 못 이루도록 슬피 울었던 곳이라 하여 호랑이 ‘虎’자와 울 ‘鳴’자를 써서 붙인 이름이다. 상봉에 봉화등도 있다.

○ 흥복고개

신지에서 흥북으로 가는 고개. 흥북에서는 신지로 넘어간다고 하여 신지고개라고 한다.

○ 흥복산(弘福山)

백석면과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높이 347m의 산. 서울의 주산으로서 만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종루처럼 생겨서 온 겨레를 깨우쳐 준다 하여 종루봉(鐘樓峰), 이 산이 보이는 곳에 문장가, 명필이 많이 난다 하여 필봉(筆峰)이라고도 한다. 남면 상수리에 사는 홍씨 선조가 서울에서 낙향하여 살 곳을 정할 때 이 산마루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남면 상수리가 제일 적지라 생각되어 자리잡고 살았더니 자손도 번성하고 출세도 잘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홍씨 번영지(繁榮之地)를 발견한 산이며, 홍씨에게 복을 준 산이라 하여 흥복산(洪福山)이라고도 한다.

#### 4. 가업리(加業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하가업리 전부와 백석면 상가업리·소오산리·단촌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가업리라 하였다. 가래밭이 있어 가래비가 되었다가, 한자말인 가업리로 변하였다고 한다. 백석과 광적을 둘러싼 산 아래에 가래비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동네들이 많아, 12가래비가 있었다는 말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 건너말

윗가래비의 서쪽 건너에 있는 마을.

● 골말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 넘말

중간말 너머에 있는 마을.

● 뒷골

아랫가래비 서쪽에 있는 마을.

● 뒷말

윗가래비의 건너말 북쪽에 있는 마을.

● 아랫가래비[下加業]

윗가래비 북쪽 가업 2리 지역에 있는 마을.

● 양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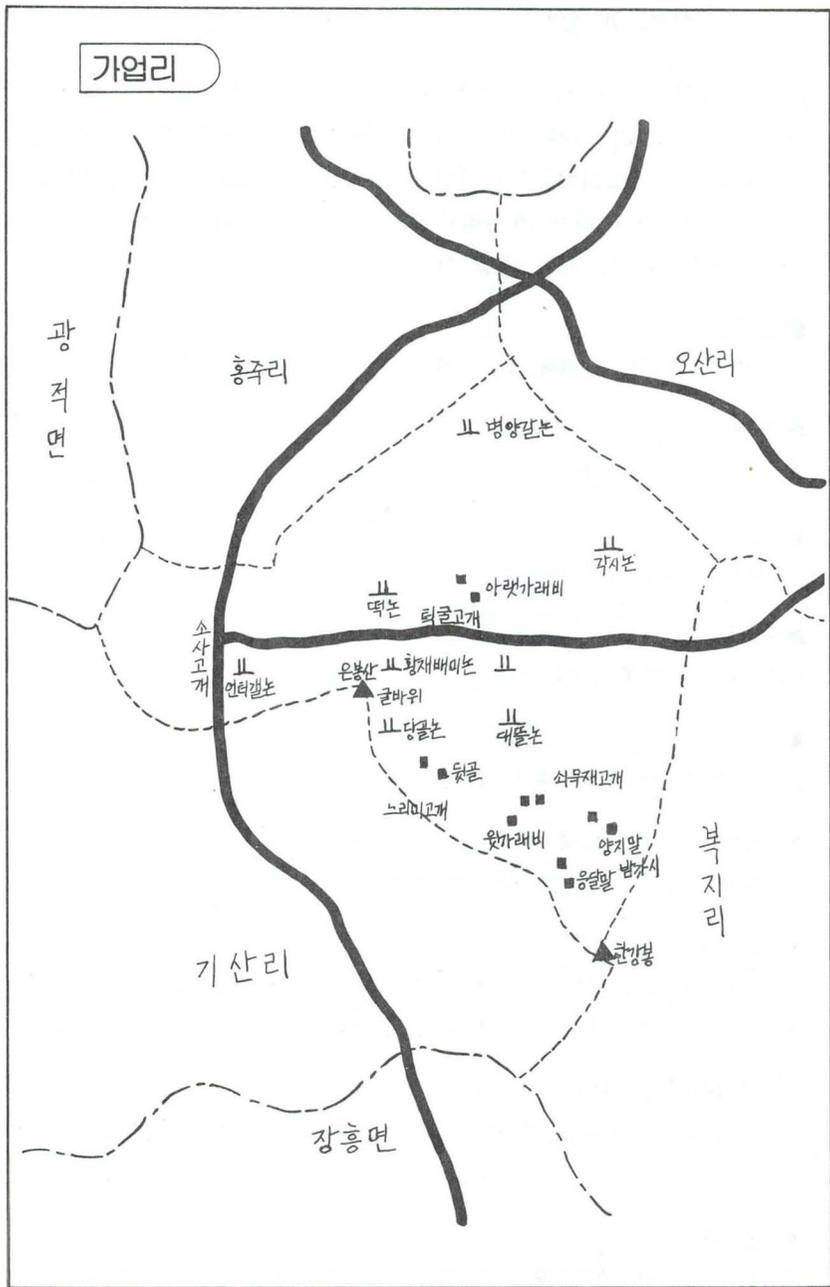
윗가래비의 북동쪽에 있는 마을. 양지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응달말과 넘말 사이에 있어 중간말이라고도 한다.

● 윗가래비[上加業]

가업 1리에 있는 마을. 양지말·넘말·응달말을 합쳐 윗가래비라고 한다.

● 응달말

윗가래비의 남동쪽에 있는 마을. 응달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가나뭇재고개[加峴]

응달말에서 복지리 신지로 가는 고개. 응달말고개라고도 한다.

○ 각시논

윗가래비 동쪽에 있는 논.

○ 갓마바위

느르미고개 중턱에 있는 바위. 갓모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며 노고할 머니가 치마로 움겼다고 하여 일명 치마바위라고도 한다.

○ 갓마바위골

갓마바위가 있는 골짜기.

○ 거물논

거머리가 많아 이름 붙은 논.

○ 고상절

은봉산에 있었던 절. 옛날에 절이 있던 자리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굴바위

은봉산에 있는 바위. 굴이 뚫려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췌골

소귀(소죽통)같이 생겨 붙은 골짜기 이름.

○ 긴등

삿갓바위골로부터 양지말까지 이어진 능선. 능선이 길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소혈(穴)이라고 하며, 매년 10월 1일 고사를 지낸다. 지형이 와우형이라 옛날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을 못 지었다고 한다.

○ 콩지밭

양지말에 있는 밭. 소꼬리같이 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느르매기

아랫가래비 북동쪽에 있다.

## ○ 느르미고개[獐峴]

가업리 남서쪽에서 기산리 턱골로 가는 고개.

## ○ 당골

아랫가래비 남쪽에 있는 논.

## ○ 대들

아랫가래비 남동쪽에 있는 들. 큰 들이라 생긴 이름이다.

## ○ 뒷박골

뒷박같이 생겼다 하여 붙은 골짜기 이름.

## ○ 떡논

윗가래비 서쪽에 있는 논. 예전에 9마지기 논을 떡과 바꾸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맷돌바위

은봉산에 있는 바위. 옛날 호랑이가 이곳에 있는 동굴에 빠져 죽었다고 하여 호랑이바위라고도 한다.

## ○ 물뱀저수지

물뱀이 많아 붙은 저수지 이름.

## ○ 바위배기

당골에 있는 논. 논 가운데에 바위가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 ○ 밤가시

윗가래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밤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방굴

아랫가래비에서 황재배미논보다 더 남쪽에 있는 논.

## ○ 뱀밭

아랫가래비 동쪽에 있는 밭. 밭이 길어서 붙은 이름이다.

○ 벌판밭

가나뫼재고개 너머에 있는 들.

○ 병양갈논

아랫가래비 북동쪽에 있는 논.

○ 부엉이묘

은봉산 맨 꼭대기에 있는 묘. 옛날 어느 집에서 장사를 치르는데 지관이 말하기를 “이곳을 파고 바윗돌이 나오면 시신을 그 위에 올려 놓고 묻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손들은 시신을 돌 위에 올려 놓고 묻을 수 없어 바윗돌을 들어내었더니 마침 부엉이 3마리가 이곳에서 날아갔다고 한다. 그 후 이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군용 헬기장이 들어서 반쪽만 남았다.

○ 산앞 샷갯벌

윗가래비 남쪽에 있는 들.

○ 삼형제바위

은봉산에 있는 바위. 세 개의 바위가 형제처럼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상구너미

넘말에서 기산리 턱골로 가는 고개.

○ 성황당이

가나뫼재고개 너머에 있다.

○ 쇠목재고개

윗가래비쪽에 있는 고개. 쇠목(소의 목)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설바위

느르미고개 중턱에 있는 바위.

○ 앵두논

아랫가래비 북동쪽에 있는 논.

## ○ 언터겔논

아랫가래비에 있는 논.

## ○ 언터겔밭

아랫가래비에 있는 밭.

## ○ 언턱가리

윗가래비와 아랫가래비 사이에 있는 논.

## ○ 역두리

아랫가래비 동쪽에 있는 밭.

## ○ 웅안리등

가업리에서 오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 ○ 은봉산(隱鳳山)

가업리와 기산리에 걸쳐 있는 높이 397.8m의 산.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이곳에서 은을 채굴하였다고 하며, 지금도 은봉산 중턱에는 당시 찢던 은굴이 있다고 한다. 1842년 경 간행된 『읍지』에는 은봉산(隱峯山)으로 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산제사를 지낸다.

## ○ 진틀

아랫가래비 북동쪽 병양같은 옆에 있다.

## ○ 진틀다리

가업리와 오산리 사이에 있는 다리.

## ○ 턱굴고개

아랫가래비에 있는 고개.

## ○ 한강봉

가업리·기산리·북지리에 걸쳐 있는 높이 436m의 산. 산꼭대기에 오르면 한강이 보인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서 봉화를 올렸다고 하여 봉화등이라고도 한다.

## ○ 혼두리

아랫가래비 동쪽에 있는 논.

## ○ 황재배미

아랫가래비 남동쪽에 있는 논.

## ○ 흙구덩이

가나못재고개 너머에 있는 구덩이. 마을 사람들이 마당을 들일 때 이곳에서 흙을 파 왔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 5. 홍죽리(弘竹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내동리·홍동리·천죽리 전 지역과 백석면 난곡리·단촌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홍죽리라 하였다. 홍죽리라는 지명은 홍동리(弘洞里)와 천죽리(川竹里)에서 한 자씩을 따서 지은 것이다.

## ● 고말재

안골 동쪽에 있는 마을.

## ● 골말

홍골 북쪽에 있는 마을. 골짜기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 냇대

홍골 북쪽에 있는 마을. 동쪽 내에 희귀한 대나무가 있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냇은 내 ‘川’을, 대는 대 ‘竹’을 가리켜 천죽(川竹)이라고도 한다. 또는 임진왜란 당시 왜병들이 연곡리 피난말에서 싸우다 이곳으로 냇대 도망쳤다 하여 냇대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 ● 북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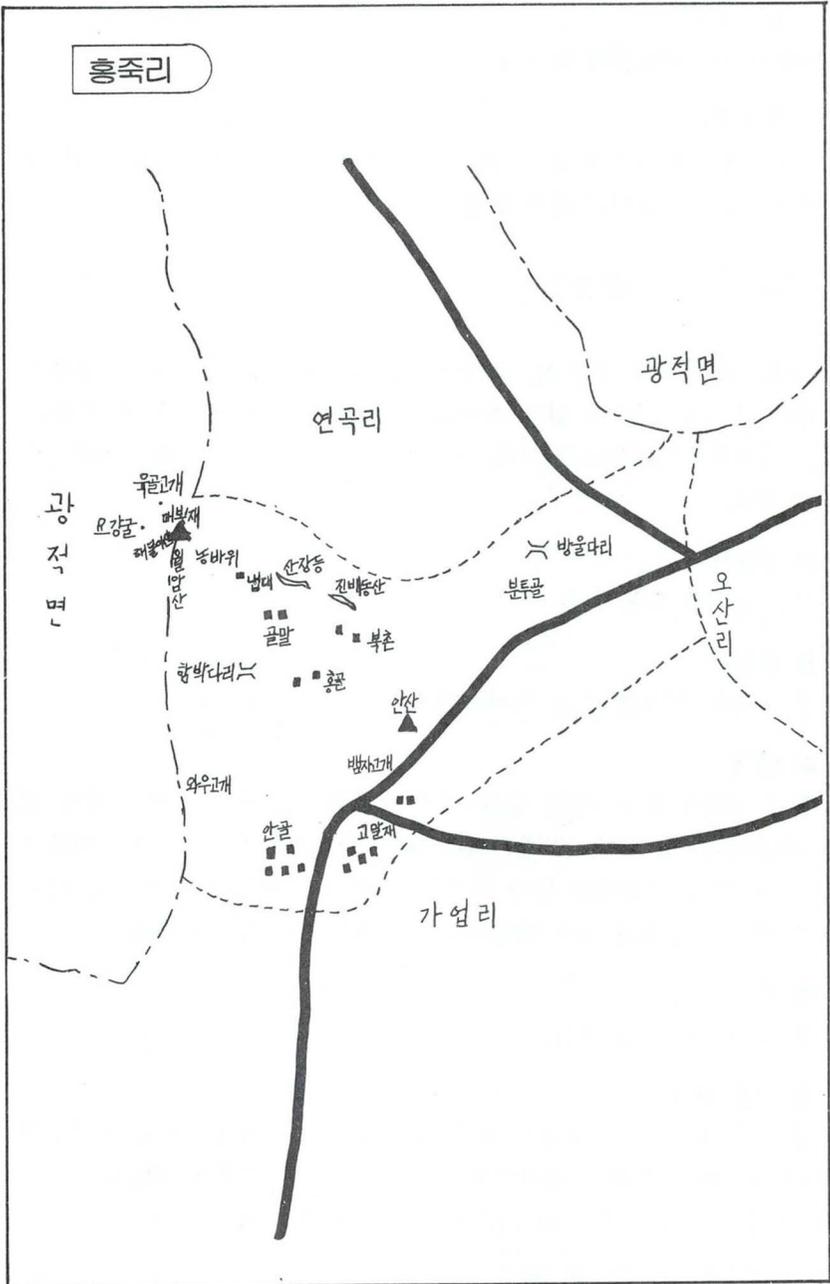
홍골 북쪽에 있는 마을.

## ● 안골[內洞]

홍골에 있는 마을. 홍골 안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산 밑의 아담한 부락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윤자운 묘 위치 설명에 의하면 내죽(乃竹)리라고 되어 있다.<sup>8)</sup>

8) 민족문화추진회, 위의 책, 266쪽.

흥죽리



● 홍골 · 홍동

홍죽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인근 부락 중에서 가장 크다 하여 홍골이라 부른다.

○ 거지고개

홍죽 1리에 있는 고개. 쌀을 얻으러 왔던 거지가 얼어 죽어 이곳에 묻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계명산

월암산과 팔일봉 사이에 있는 산.

○ 농바위

월암산 중턱 북쪽에 있는 바위. 장롱처럼 넓적하게 생겨 붙은 이름이다. 옛날 장수들이 갑옷을 벗고 쉬어갔다 하여 장군바위라고도 한다. 위에서 발을 구르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한다.

○ 도장재

토성너머 남쪽에 있는 산. 도장을 엮어놓은 것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말무덤

활터고개 남쪽에 있었던 무덤. 임진왜란 당시 왜병들의 말을 묻었다 고 전해진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 매봉재

월암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매가 많이 살아 붙은 이름이다.

○ 바우배기

넙대 북쪽에 있는 논. 논 가운데에 바위가 9개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며 지금은 없다.

○ 박사부다리

강철이개울에 박씨 성을 가진 부자 과부가 놓은 다리.

○ 방울다리

연곡국민학교 앞에 있는 다리. 이 지명과 관련된 유래로 두가지가 있

다. ① 평사냥 하던 매의 방울이 다리에 떨어졌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② 하나의 돌로 가운데가 볼록하게 방울같이 놓여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뱀자고개

홍골에서 안골로 넘어가는 고개. 길이 뱀처럼 구불구불하고 험하여 붙은 이름이다.

○ 분투골

기산리와 오산리를 연결하는 도로에서 냇대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다. 옛날 동네에 전염병이 돌아 죽은 사람들을 이곳에 묻었다고 한다.

○ 산잔등

홍골과 냇대 경계 지점에 동서로 길게 자리잡고 있는 동산. 산이 말잔등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삼형제바위

큰 바위 세개가 나란히 있는 바위.

○ 쇠망토산

홍골 남서쪽에 있는 야산. 쇠망터라고도 한다.

○ 안산

홍골 남쪽에 있는 산.

○ 애비당골

냇대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와우고개[臥牛峴]

안골에서 광적면 비암리로 가는 고개. 소가 누워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와우개·하우고개라고도 한다.

○ 요강골

월암산 너머 비암리 쪽에 있는 골짜기. 요강처럼 우뚝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월암산

넙대 북서쪽에 있는 산. 산에 바위가 많아 밤에 뜨는 달빛이 바위에 반사되어 그 색채가 아름답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이 매년 10월 1일 이곳에서 산제사를 지낸다. 이 산에 등잔혈이라는 묘자리가 있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그 후손들만 번창하고 다른 사람들은 질병과 가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곳의 묘를 다 없애버렸다고 한다. 「양주군도」에는 노아산(老兒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 ○ 육골고개

월암산 너머 비암리쪽에 있는 고개. 고개가 길어서 옛날 나무꾼이 여섯번 이상 쉬지 않으면 골병이 든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장자우물

분투골에 있는 우물. 헌집터의 부자가 망할 때 구리 암반(떡치는 판)을 묻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진배동산

산잔등 오른쪽에 있는 능선. 긴 배모양을 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한자말로 장주산(長舟山), 우리 말로 긴배가 발음변화된 것이다. 진비동산이라고도 한다.

## ○ 질묵다리

넙대에 있는 다리. 이 지명과 관련된 유래로는 다음과 같다. ① 소질묵(길마의 사투리)에 짐을 싣고 이 다리를 통과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② 이 근방의 흙이 너무 찰지고 질어서 신발에 묻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 집너머

홍골의 안산 남쪽에 있는 논고래. 집 너머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철망안

헌집터에 있었던 과수원. 철망으로 둘러쳐져 있어 붙은 이름이다.

## ○ 축동

철망안 옆에 있다. 아래쪽에 연못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 토성너머

넙대 남동쪽에 있다. 지금은 밭으로 변하였다.

## ○ 한우물

홍골에 있는 우물. 물이 매우 차서 찰 ‘寒’자를 붙인 이름이다.

## ○ 할딱고개

넙대 동쪽에 있는 고개. 고개의 경사가 너무 심하여 사람들이 할딱거리며 넘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함박다리

홍골에 있는 다리. 이 마을에 많이 살던 한씨와 박씨가 처음으로 놓은 다리라고 하여 한박다리라고도 한다.

## ○ 해몰이산

월암산 중턱 남쪽에 있는 봉우리. 해가 산을 돌아가면서 비취 항상 그늘이 진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헌집터

넙대에 있는 집터. 임진왜란 전에 높은 벼슬하던 사람이 낙향하여 3층 기와집을 짓고 살았는데, 의병들을 숨겨주어 왜병들이 불을 질렀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주춧돌을 볼 수 있고 사기그릇 조각들이 나온다.

## ○ 활터고개

넙대 입구에 있는 고개. 옛날 마을 사람들이 활을 쏘던 자리라고 한다.

## 6. 연곡리(蓮谷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해유리(蟹踰里) 전 지역과 연평리(蓮坪里)·난곡리(蘭谷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고, 연평리와 난곡리에서 각 한 자씩을 따서 연곡리라 하였다.

### ● 게너미[蟹踰]

난곡 북쪽에 있는 마을. 게가 양주에서 파주로 넘어갔다고 하여 게너미라고 하였다.

● **골말**

지령산 밑에 있는 마을. 게너미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난곡·피난말**

연곡 1리에 있는 마을. 난이 많이 자생하는 아름다운 부락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피를 토하고 죽은 곳이라 하여 피가 난 마을, 혹은 피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피했던 마을이라 하여 피난말이 되었다고도 한다.

● **능무랭이**

난곡 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에 있던 느티나무에서 뱀이 많이 나와 능구렁이라고 불렀는데, 발음변화로 인해 능무랭이가 되었다.

● **도축골**

게너미에서 잼말 동쪽에 있는 마을. 조선조 중엽 광적면 우고리와 백석면 연곡 2리의 경계인 함정모퉁이라는 곳에 도둑떼가 들끓었는데, 부락민들이 도둑을 쫓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전해온다. 도치골이라고도 한다.

● **두레마을**

연곡 1리에 있는 마을. 최근 장애자들이 들어와 마을을 꾸몄다고 한다.

● **매장거리**

해유령전첩비 옆에 있는 마을. 매쟁이·매장간 등으로 불린다. 옛날 의정부·동두천 방면에서 문산쪽으로 소금, 새우젓 등을 사고 팔러 다니는 행객들이 이곳을 많이 드나들었는데, 이곳에서 쉬어 갔기 때문에 ‘매일 장날’이라고 한테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상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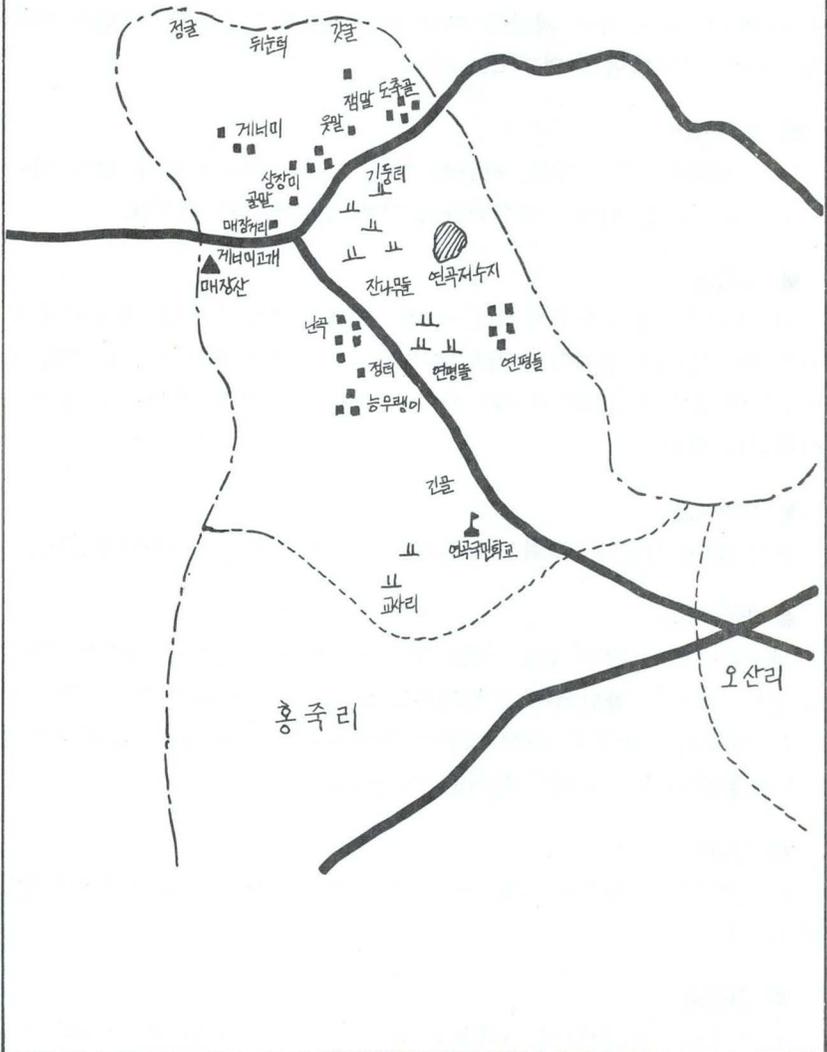
해유령전첩비 동쪽에 있는 마을. 뒤쪽에 상장산(上場山)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연평들**

난곡 동쪽 평야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 옛날부터 난과 연이 많이

연곡리

광 직면



있었고 연못도 있다. 연평이라고도 부른다.

● 웃말

게너미에서 잼말 서쪽에 있는 마을.

● 잼말

게너미에서 웃말과 도축골 사이에 있는 마을.

● 정터

난곡 남동쪽에 있는 마을. 싸움터라 ‘전(戰)터’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정터로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 신각장군이 진을 친 곳이라고 하여 진터라고도 부른다. 한·안·조씨가 맨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하여 한안조마을이라고도 한다.

○ 갓굴

웃골안 우측에 있는 골짜기. 광적면 우골 방향이다. 가풀이라고도 한다.

○ 강철이개울

난곡 우측에 있는 개울. 강철이가 떨어져 죽은 개울이라 붙은 이름이다.

○ 게너미고개

게너미에서 광적면 비암리로 가는 고개. 옛날 노고할머니가 노고산과 도락산의 봉우리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오줌을 누는데, 게가 다리를 물어 그 게를 집어던졌다고 한다. 그 게가 파주로 넘어간 고개라고 하여 게 ‘蟹’자를 쓰게 된 것이라 한다.

○ 과녁배기

활터의 과녁이 있었던 논.

○ 교사리

연곡국민학교 앞의 논.

○ 기둥터

웃말에서 도로 건너 남쪽에 있는 논.

## ○ 긴골

연곡국민학교 좌측에 있는 골짜기. 긴 골짜기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까마귀뜰논

한섬지기는 남동쪽에 있는 논. 옛날 이 마을에 저수지가 없을 때 농사를 짓지 못하고 까마귀만 날아들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항상 물이 없어 다른 논은 모를 다 내도 이곳만은 모를 못 내 까맣게 보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 뒤눈턱

정굴 우측에 있는 골짜기. 광적면 우골 방향이다. 뒷산 밑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뒤눈턱밭

뒤눈턱 골짜기 쪽에 있는 밭.

## ○ 마을앞논

게너미 앞에 있는 논.

## ○ 말무덤

진터에 있는 무덤. 언제인가는 잘 모르지만 죽은 말들을 묻은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지금은 마을이 들어서 있다.

## ○ 매장산

해유령전첩비 맞은 편인 산.

## ○ 모래논

소물은 남쪽에 있는 논. 장마 때 홍수로 모래가 밀려들어서 만들어진 논이다.

## ○ 무명바위

능무랭이 뒤쪽에 있는 바위. 석수쟁이가 바위를 깨니 그곳에서 피가 흘러 깨기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 ○ 묵은논

자라등뿌리 남쪽에 있는 논.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힌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방아다리

연곡 2리에 있는 다리. 80~90년 전 연자방앗간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방죽논

방죽으로 막았다 하여 붙은 논 이름.

○ 사당골

계너미 뒤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상정리

갓굴 우측에 있는 골짜기. 광적면 소가리 방향이다.

○ 섬샘논

기둥터 남쪽에 있는 논. 비만 오면 물이 많이 나와 피해를 준다고 한다.

○ 소물논

섬샘논 남쪽에 있는 논. 소가 잘 빠져 붙은 이름이다.

○ 쌍감덩이

계너미에서 비암리 방향으로 가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안우물

들 틈에서 나오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 우물. 이 물을 먹고 장사가 낫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 연평뜰

들이 넓어 이름 붙은 들. 이곳에 우물이 있어 연평뜰 우물이라 하며,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먹었다고 한다.

○ 웃골안

뒤편 우측에 있는 골짜기. 광적면 우골 방향이다.

## ○ 자리등밭

연곡 1리에서 2리로 가는 도로 옆에 있는 밭. 옆산의 형세가 자리 등  
과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자리등뿌리

난곡 북동쪽에 있는 모퉁이.

## ○ 잔나무들

모래논 남쪽에 있는 논. 논 가운데 잣나무가 있어 잣나무뜰 논자리라  
고도 한다.

## ○ 재장나무자리논

모래논 남동쪽에 있는 논. 자작나무 밑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 ○ 잼말우물

잼말에서 도로 건너 남쪽에 있는 우물.

## ○ 정굴

쌍감태이 우측에 있는 골짜기. 광적면 안세오개 방향이다.

## ○ 지령산

골말 북쪽에 있는 산. 지영꼴이라고도 한다.

## ○ 청옹뿌리밭

계너미에 있는 밭.

## ○ 한섬지기

잼말우물 남쪽에 있는 논. 종자벼가 한 섬이나 든다 하여 붙은 이름  
이다.

## ○ 향자등

계너미의 지령산 서쪽에 있는 산.

## ○ 형제우물

연곡 2리에 있는 우물. 샘 두 개가 마치 형제처럼 있어 붙은 이름이  
다.

## 7. 기산리(基山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백석면 기곡리(基谷里)·내고령리(內古靈里) 전 지역과 중산동(中山洞) 일부 지역을 병합하고, 기곡리와 중산리에서 각 한 자씩 따와 기산리라 하였다.

### ● 석골[石谷]

안고령 북쪽에 있는 마을. 옛날 석씨(石氏)가 부락을 개척했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돌이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 안고령

석골 남쪽에 있는 마을. 옛부터 앵무봉은 고령산이라고도 하였는데 12개의 계곡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골짜기에 마을이 형성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 주리골

옛날에 안고령과 석골을 합쳐 부른 마을 이름. 이 마을에 주씨와 이씨가 처음 정착하였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턱골

기산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마을. 큰 산 밑에 턱이 진 형세로 되어 있어 붙은 이름이다. 한자말로 기곡(基谷)이라고 한다.

### ○ 거성탱이

안고령에 있는 웅덩이.

### ○ 경수웅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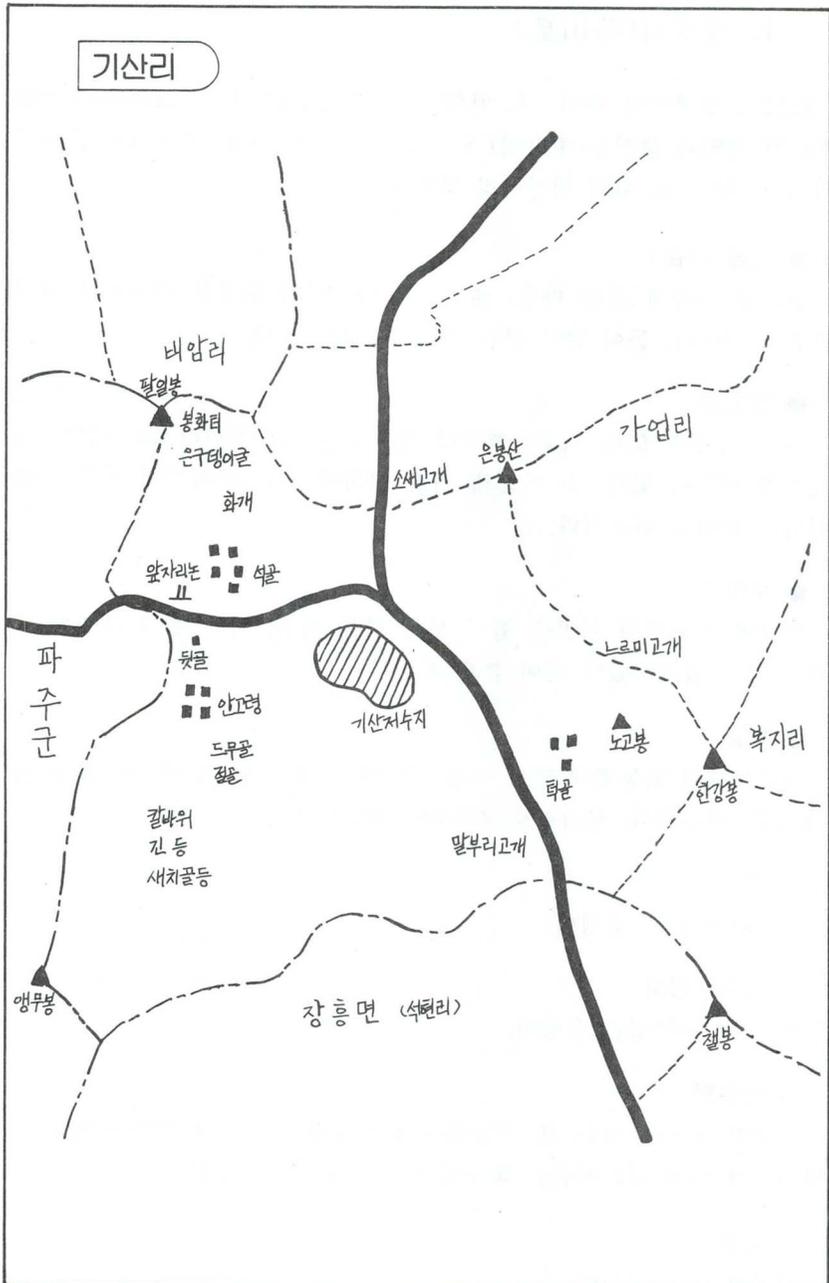
절골 위쪽에 있는 웅덩이.

### ○ 국수당

안고령 동쪽에 있는 산. 서산대사가 머물렀다고 하여 서산대 또는 사명당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국수당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 ○ 긴등

절골에 있는 등성이.



## ○ 노고봉

턱골 동쪽에 있는 산. 기산저수지를 끼고 우뚝 솟은 산인데, 옛날 노고할머니가 치마폭으로 돌을 날라 산성을 쌓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도 그 형태가 있다고 한다.

## ○ 뒷골

안고령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드무골

안고령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말구리고개

백석면 기산리에서 장흥면 석현리를 잇는 높은 고개. 고개가 급경사여서 말이 뛰어 오다 굴러 죽어 붙은 지명이다. 말부리고개라고도 한다.

## ○ 문앞논

석골 남쪽에 있는 논.

## ○ 봉화터

팔일봉에 있는 터. 봉화대가 있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 ○ 새치골등

절골에 있는 등성이.

## ○ 석곡

안고령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돌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 ○ 소새고개[素砂峴]

백석면 안골을 지나 기산저수지에 이르는 높은 고개. 이 고갯길은 그 모양이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옛부터 이 근방에 묘를 쓰면 소새라는 새가 뱀을 찍어 먹는다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실제로 허씨 집안이 묘를 쓰고 망하였다고 한다. 소사고개라고도 한다. 1760년에 간행된 『여지도서』에는 소사현(所沙峴)으로 나타나 있다.<sup>9)</sup>

9) 『輿地圖書』上 (國史編纂委員會, 40쪽).

## ○ 앞자리는

석골 남쪽에 있는 논.

## ○ 올밀논

석골 북쪽에 있는 논.

## ○ 은구덩이굴

팔일봉 남쪽에 있는 굴. 일제시대에 은을 찾으려고 굴을 팠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은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 ○ 절골

안고령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현재 파주군 광탄면에 있는 보광사가 원래 이곳에 있었는데 빈대가 하도 많아 이전하였다고 전해진다.

## ○ 중뜰

석골 남서쪽에 있는 뜰. 안고령과 석골 중간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칼바위

절골에 있는 바위. 칼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지혈제로 쓰이는 일엽초가 난다.

## ○ 팔일봉(八日峰)

기산리와 비암리에 걸쳐 있는 높이 440m의 산.

## ○ 화개

은구덩이굴 남쪽에 있는 고개. 꽃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 ○ 화개골짜기뭇

팔일봉으로부터 화개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개울.